

2015. 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5.2.24.	대전MBC 대회의실	7/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성정모, 김형주, 송인덕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권홍순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11	-	1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8	7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1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비정규직에 관심을 계속	시사프로그램에서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조명	1월
교양	세종시 정주 조건 계속 다루기를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서 세종시 계속 다루고 있음	1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소개를	토크 프로그램에 스티브 김 출연 꿈과 비전 제시	1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사안에 따라 대안 제시 필요	시사프로그램 폐기물처리 대안 제시 (폐기물업체 시민기업 전환 사례)	1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사안에 대해 찬반 입장 균형감각 지니고 전달	시사프로그램 '골프존 문제점' 찬반 입장 균형 있게 전달	1월
보도	희망나누기 성금 사용처 소개	희망나누기 성금 사용처 소개	1월
기타	홈페이지 뉴스 다시보기 날짜에 맞춰 정확하게 올려 놓도록	뉴스 다시보기 정확하게 날짜 맞춰 올려 놓음	1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에 기부문화 확산되도록 소개	교양 프로그램에 코너로 소개함	1월
보도	세종시 구, 원도심 균형발전 되도록 보도 필요	세종시 문제 꾸준하게 보도	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5.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2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허참의 토크 & 조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편(2월 14일)에는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국내 1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스튜디오로 나와서 떡국에 대한 역사를 자료화면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방청객들과 시청자들의 공감과 상상력을 이끌어내었다. 이어 진행자와 게스트가 함께 모여앉아 음식에 대한 깊은 뜻을 다시 짚어 주면서 맛의 근원과 역사를 밝히는 사람으로써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일상적인 음식에 담겨있는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주어,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상자료를 통해 맛 칼럼니스트가 직접 식재료를 소개하고 취재하는 모습은 진솔하게 전해지도록 하였다. 맛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맛있게 말하는 맛 칼럼니스트와 기존 진행자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진행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덕성).</p>	<p>‘허참의 토크 앤 조이’는 토요일 오전시간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교양 토크 프로그램이다. 토크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한 게스트의 인생과 답변이 프로그램의 핵심이기에, 연출진은 출연자 섭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p> <p>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편은 최근 트렌드인 맛과 음식에 집중해서 음식 평론가 황교익의 숨은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집중해 연출하였고, 이런 부분이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 된다.</p>	○		
교양	<p>시사플러스 「호남KTX 상생은 없나/공익사업의 그늘, 오류동 157번지」 편(2월 24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 KTX 문제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 위기에 놓인 오류동 157번지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p> <p>KTX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는 최근 대전과 호남지역의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부는 중간역인 서대전역을 배제하고 호남KTX 운영을 결정하였다. 이에 본 방송에서는 호남KTX 운영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대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었다. 대전 지역방송으로서 시사플러스의 적합한 주제 선정이었다고 판단된다. KTX 경유에 대한 대전과 호남지역의 주장을 각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후 스튜디오에서의 진행자가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편리하였다.</p> <p>고속철도는 ‘빠르다’에서 ‘빠르고 편안하다’ 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신오사카역, 독일 도르트문트역 등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지금은 빠르다는 개념만</p>	<p>호남선 KTX 서대전역 정차 문제는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확대 재생산되어, 궁극에는 국가 전체의 갈등 요인까지 만들어냈던 사안이다.</p> <p>지역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제작진에게 많은 고민을 안기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지역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으로서 자기 지역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세도, 공정성을 이유로 절대적 균형 시각도 모두 지탄을 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p> <p>제작진은 지역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모두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제에 대한 사전회의를 진행하였고, 지역성을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하였다. 다양한 사안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시사플러스에 이러한 고민을 담겠다.</p>	○		

	<p>으로 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하지 않는다. 철도공사의 경우를 봐도 수요중심으로 생각을 한다. 교통개발연구원, 대전, 중앙의 전문적인 교통학자 등을 섭외해 나라의 국가기간망 중심으로 고속철도 노선을 재조명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해주길 바란다(오덕성).</p>			
<p>교양</p>	<p>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사망사고보다 자살사망자가 더 많다고 한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고 한다. 특히 충청권의 노인 자살율은 매년 상위라는 불명예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심각성으로 시사플러스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노인 자살률 문제를 다루었다.</p> <p>이날 시사플러스에서는 첫째, 우리 지역 전국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둘째, 대전과 충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표면적인 노력은 해오고 있는데 자살율은 왜 높게 나오는 건지 셋째,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해 타 지역 모범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p> <p>이번 방송은 심각한 우리 지역 노인 자살률과 관련하여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고 본다.</p> <p>또한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대다수 노인관련 복지프로그램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자살예방센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부분과 노인자살예방과 관련해 모범사례로 꼽히는 전북 김제시의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 그룹 홈 사업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아주 신선한 대안제시로 다가왔다.</p> <p>우리 지역의 높은 노인자살률. 공공을 떠나 민간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 그룹 홈 사업의 경우 세종시 지역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방송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p> <p>그리고 굳이 옥에 티를 지적한다면 박혜영 PD의 “충남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1년까지 노인자살율 전국 1위” 라는 멘트가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이라는 것을 잘못 발언하였다(장백기).</p>	<p>충남 지역의 노인자살 문제를 다룬 시사플러스 방송분은 방송이후 여러 경로로 칭찬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다.</p> <p>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까지 고민했던 부분도 역시, 방송후 시청자들의 많은 격려가 이어졌다.</p> <p>앞으로도 지역의 의제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프로그램에서 수치 오류는 바로잡도록 하겠다.</p>	<p>○</p>	
<p>교양</p>	<p>대전MBC 표준FM(92.5)에서는 매주 토(11:10~ 11:50) 약 40분간 '희망찾기 민들</p>	<p>'희망찾기 민들레'의 <우리의 이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p>	<p>○</p>	

	<p>레'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p> <p>이 프로그램은 기부문화 확산에 보탬을 주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는 '작은나눔 큰기쁨' 코너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이웃을 찾아 도움을 소개하는 '우리의 이웃'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p> <p>또한 '우리의 이웃' 코너를 통해 도움을 주신 사람들과 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웃'에 소개된 대상자에 대한 도움과 사후이야기는 없는 게 아쉽다.</p> <p>'희망찾기 민들레'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분기별로 도움현황 및 '우리의 이웃'에 소개된 대상자에 대한 사후이야기를 올려 도움을 주신 사람들의 뜻이 잘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주었음 한다(장백기).</p>	<p>는 공익 코너이다.</p> <p>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코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내용 소개 부분도 보강하도록 하겠다.</p>			
기타	<p>창사 50 주년 , 100년 친구 대전MBC 는 지난 한해 대전MBC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시·청취자들 에게 한 번에 각인시켜 준 최고의 슬로건 이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이 슬로건은 슬그머니 우리주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100년 친구 대전MBC' 만은 대전MBC의 대표 슬로건으로 계속 남아 있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대전MBC의 홈 페이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 100년 친구 대전MBC 안내편' 의 인사말을 열어 보았다.</p> <p>“대전문화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취자 여러분, 홈 페이지를 방문해주시는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까진 좋았는데 “올해로 저희 대전문화방송은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대전문화방송은 창사 50주년을 맞아 '100년 친구, 대전MBC'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민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은 다양한 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비전을 제시 하겠습니다.”</p> <p>올해도 이제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로 저희 대전문화방송은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구절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게 아쉽다.</p> <p>이 인사말을 전량 폐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아깝다. 몇몇 구절만 수정하면 될 듯 싶다. 지난 한해 대전문화방송은 창사 50주년을 맞아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로 지역민들을 찾아 갔다.</p> <p>'100년 친구 대전MBC' 라는 타이틀을 앞에 달고서 말이다. 이 슬로건은 지난 한 해에만 쓰고 폐기하기엔 너무 아깝다.</p>	<p>홈페이지 “창사 50주년을 맞아...”문구는 바로 수정하였다.</p> <p>'100년 친구 대전MBC' 슬로건은 작년 한 해 창사 50주년 행사에만 일회성으로 사용한 슬로건이 아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100년 친구, 대전MBC'를 계속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p>			

	<p>'100년 친구 대전mbc'가 시·청취자들에게 이제는 꽤나 익숙 해져있기 때문이다(김학선).</p>			
<p>보도</p>	<p>동의어의 반복사용으로 의미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의어와의 혼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신문 쪽 보다는 우리 방송 현장에서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p> <p>얼마 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투표에서 재석의원 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고 보도 하고 있었는데 , '과반수 이상'에서'과반수'라는 한자말이 이미 '절반 이상 '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상'을 하나 더 붙이면 문제가 되고 만다. 따라서 그냥 '과반수' 로 써야 한다.</p> <p>'과반수 찬성'으로가 정확한 표현이다.</p> <p>최근 한낮의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오르내리면서 '등산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등산'이 '산에 오른다'는 명사다. 산에 오르는데 또 '가는'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등산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다.</p> <p>이제는 많이 고쳐졌지만 아직도 '접수를 받다' 라고 쓰고 있는 경우를 본다.</p> <p>'접수' 라는 한자어에 이미 '받을 수 '가 포함돼 있어서 '접수를 받다'는 중복 표현이다. '접수하다'가 올바른 표현이다(김학선).</p>	<p>동의어의 반복 사용이 없도록 기사 수정을 철저히 하겠다. 아울러 기사 작성시 표준말과 올바른 우리말 보급에도 노력하겠다.</p>		
<p>교양</p>	<p>시사플러스“호남KTX 상생은 없나”(2월 13일)는 시의적절한 소재이었다.</p> <p>현재 코레일은 부채만 17조에 이르고 있어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서 수익을 올려야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이런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코레일 입장에서 수익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전역 수요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장을 모색할 지도 모른다. 대전역 이용객이 하루 평균 5300명으로 무시 못할 이용객들이다.</p> <p>고속철도 노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한찬희).</p>	<p>호남KTX 문제는 현재의 주변상황과 우리 지역의 정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정확한 평가 등을 고루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시사 플러스에서 집중해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 주의깊게 보고 있다.</p>		
<p>교양</p>	<p>허참의 토크 앤 조이에서 샌드아트(2월 21일 방송)란 새로운 미술장르를 개척한 김하준 작가를 초빙 '인생'이란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 프로그램이었다. 검은 바탕에서 어둠을 파헤치듯이 하이얀 모래로 밝은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숨가쁘게 반복하는 것이 그늘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느낌이 들었</p>	<p>샌드 아티스트 김하준의 경우, 역경을 극복하고 국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아티스트이다.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웠던 과거부분의 회상이 있었다. 시청자들의 선호도와 취향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p>		

	<p>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초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야기와 가난한 아티스트의 기구한 삶 등을 펼쳐 프로그램 전체를 무겁고 어둡게 이끌었던 점은 아쉽다(한찬희).</p>				
<p>보도</p>	<p>시사광장에서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무산’ 관련 토론을 가졌다(2월 7일). 호남선 KTX의 운영계획 발표로 최근 지역에서 서대전역 미경유 관련하여 지역갈등이 양성화되고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토론 주제로 다루었다고 본다. 토론 방송이지만 호남선 현황에 대한 사전소개 영상을 편집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방영한 것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호남선 저속 운영의 근원적인 문제점인 서대전-논산 구간의 곡선 철로 구간의 직선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서대전 경유 논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월 호남선 개통후 운영성과에 따라 경제성, 편의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운영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내년 수서발 KTX 개통시 보완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가 필요한데 방송에서 이를 잘 잡아 지속적으로 보도해주길 기대한다(김명수).</p>	<p>호남선 철도 서대전-논산 구간의 직선화 필요성과 수서발 KTX의 서대전역 경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위한 대전시 등 지역 관계 기관의 대처 상황도 빠짐없이 보도하겠다.</p>		○	
<p>교양</p>	<p>시사광장에 이어 시사플러스에서도 KTX호남선 문제를 다루어 현안 이슈에 대한 지역방송의 적극적 역할 수행에 대해 좋게 보았다. 다양한 현장 인터뷰 취재를 통해 현지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갈등의 모습인 시위영상이나 지역의 반대 의견을 부각시킨 듯한 편집으로 보이며 전문가 분석으로 취재한 대상이 시사광장 패널에 참여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차 등장해 신선감이 떨어졌다. 현재 경부선도 동대구에서 신경주-부산 노선과 밀양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호남선에도 서대전을 경유하는 이원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호남선KTX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근 대전/광주 시장의 회동으로 보완 계획 및 협력방안을 추진하는 노력 등을 방송에서 더 많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의 순서를 시사플러스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사광장에서 개선안을 토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김명수).</p>	<p>PD와 기자가 각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호남KTX 사례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유하여 기획특집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할 때 참고를 하겠다.</p>		○	

교양	<p>테마여행 길에서는 ‘별과 과학의 신비를 찾아 떠나다- 경북 영천편’(2월 10일)을 방송하였다. 보현산에서 출발, 돌할메, 영천한우, 오토 캠핑장, 승마 체험장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50여분 방송 분량으로 여러 방문지를 알리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시청하기 좋았다.</p> <p>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한다. 반면 장년층은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진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자세한 교통정보라든지 여행정보는 프로그램에서 자막 등을 활용하여 소개해 주면 좋을 듯싶다(박희원).</p>	<p>이번 ‘테마여행 길’은 대구MBC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의 볼거리 등을 소개한다. 제작회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주지시키고 시청자편에서 필요한 정보를 방송심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게끔 하겠다.</p>	○		
교양	<p>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청소년이 실종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전국방송이나 지역방송이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에 지역방송에서 학교탐방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공부만 강조하는 이런 세대에서 청소년을 보듬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나고 싶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길 바란다(유덕순).</p>	<p>방송제작환경과 현재의 제작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 가능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허참의 토크 앤 조이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출연자 섭외를 할 때 시청자들이 재미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섭외했으면 한다. 출연자가 특기가 있어 스튜디오에서 시연을 하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언변이 좋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이라면 특강 형식을 취해 흥미를 줄 수 있다고 본다(박희원).</p>	<p>토크 프로그램에서 특강형식은 최근 연출진 변화이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전 혹은 중간의 특강은 출연진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 구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제작에 반영하겠다.</p>	○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광주MBC에서 제작한 맛 코너가 있었다. 전복 요리와 복어요리를 소개하는데 “우리가게에는 *** ” 라는 표현을 쓰며 가게 홍보하는 듯한 장면이 있어 언짢았다. 이런 PR성 프로그램은 사전에 걸렸으면 좋겠다(유덕순).</p>	<p>PR성 제작 프로그램은 방송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작 심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방송분은 방송 전문 출연자가 아닌 이유로 다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지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제작진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방송된 부분이다.</p> <p>특정 업소 및 상품에 대한 홍보 등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p>	○		
보도	<p>대전시 도시철도가 트램방식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직도 시민들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인지 의구심을 갖는다. 과연 트램방식이 최적의 선택 대안이었는지 트램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해 기획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오덕성).</p>	<p>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이르면 오는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미 확정된 건설방식인 ‘트램’의 적정성을 비롯해 개선 대책 등 다양한 기획보도를 추진하도록 하겠다.</p>	○		